

5월 광주 아픔 섬세하게 그려낸 '오월의 청춘'

KBS 드라마 감동·여운 남기며 중영 청춘 로맨스 속 시대적 아픔 녹여내 적재적소 파고든 OST 등 방영 화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청춘의 로맨스를 다룬 KBS 2TV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이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시대의 아픔을 그려낸 KBS 2TV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이 안방극장에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오월의 청춘'은 1980년 5월의 광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무고한 시민들이 폭도로 몰려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청춘 남녀의 로맨스를 그렸다.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1980년대의 풍경과 청춘들의 면면을 담아낸 스토리는 물론, 시대적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낸 연출과 적재적소를 파고든 OST 등으로 방영 내내 화제가 됐다.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황희태(이도현 분), 김명희(고민시 분), 이수찬(이상아 분), 이수련(금새록 분) 등 네 명이다. 극중 3년 차 간호사인 김명희는 친구인 이수련 대신 맞선자리에 나갔다가 의대생 황희태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남매로 등장하는 이수찬·수련은 부유한 집안의 부채감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사력을 다한다. 이외에도 오만석, 김원해, 엄효섭, 황영희, 심아영, 박철민 등 인기파 배우들이 출연했다.

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한 '오월의 청춘' 마지막 회 시청률은 4.6~5.6%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황희태(최원영 분)가 41년 만에 김명희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는 분당 최고 시청률 6.2%까지 돌파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극 초반에는 로맨스에 집중했다. 특히 주연 배우 이도현과 고민시의 애절한 연기가 눈길을 끌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하면서도 달달한 눈빛으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으로 버티는 신념 있는 희태와 명희로 완벽하게 녹아들며 여랑을 제대로 발휘했다.

로맨스가 중심이 됐지만 5·18이라는 시대적 배경도 잘 녹여냈다. 드라마 후반부에서는 시대의 부름에 응했던 이수찬과 대학생 이수련, 계엄군으로 돌아온 친구 김경수(권영찬 분) 등을 통해 비극적인 시대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종회에서는 김명희가 어린 동생을 살리기 위해 계엄군의 총을 맞으며 목숨을 잃는 장면이 방송됐고, 첫 회에 등장했던 유골의 주인공이 명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명희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던 황희태는 41년 만에 명희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유골인 화장시계와 혼인서약서를 받아들면서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특히 '가센 밑물이 또 나를 그 오월로 돌려보내더라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헤엄쳐볼게요'라는 황희태의 내레이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며 묵직한 메시지를 선사했다.

이렇듯 '오월의 청춘'은 교과서 속의 역사와 1980년 그 시대를 안방극장에 소환했다. 무리한 설정 대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청춘의 사랑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구덩이에도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가족애를 보여주며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드라마는 대회 4~5%대 시청률(닐슨 코리아 기준)을 유지, 화제성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5월이 되면 꼭 봐야 할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는 이유다.

최근에는 주연배우 고민시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두고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자치 공동체를 구현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000만원을 기탁, 화제가 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예술관광 스타트업 공모전

광주관광재단은 코로나19 이후 광주 관광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구축을 위해 '광주 예술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주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뉴노멀을 선도할 예술관광 기업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광주 예술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ICT기반형, 예술체험형, 마케팅형 등 세 분야이며,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사업계획 발표)를 거쳐 최종 7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7개 업체에는 업무협약 후 사업화자금으로 각 700만원을 지급하며 성과보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 5개사에 추가 지원금(500~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무공간,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28일까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 나와

아특별 개정한 국회통과, 문화재단 운영 정상화 제대로 가고 있나? 지역문화교류후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은 여름호(통권53호)에서 '문화재단 운영 정상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아특별 개정한 이후 문화재단의 전환을 위한 주요과제'(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문화재단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안'(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또한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 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예술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약과 성과, 그 사이 어디쯤'(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초 예술지원 및 문화예술인의 삶 나아졌나?'(김양균 (사)전통문화연구회 연구원)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제 6대 김덕진 이사장의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를 주제로 창을 열어 '문화 진단'에서는 조동범 전남대 교수가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를 통해 드러나는 광주 문화도시 미학의 존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코로나19 상황 속 영혼과 마음세계 탐구'를 이야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당신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보훈의 달 음악회... 17일 빛고을문화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사진)은 제186회 정기연주회 '기억 속에서(In Our Memory)'를 1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한다.

첫 번째 무대는 미국 현대작곡가 사무엘 바버의 '아그누스 데이(Agnus Dei, 하나님의 어린양)'로 꾸민다. 잘 알려진 현악 앙상블곡인 '협을 위한 아다지오'를 합창곡으로 재편성한 작품이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플래툰'의 마지막 장면에 삽입돼 이름을 알렸다.

다음으로 '애도의 노래(Nanie, op.82)'를 들려준다.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으로 당시 화가 포이어바흐의 죽음을 애도하며 쉐러의 가사가 곡을 입혔다. 아름다운 사랑마저도 결국 죽음을 극복해낼 수 없다는 애처로운 가사와 함께 세밀하고 정밀한 음악이 돋보인다.



마지막 곡은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이다. 떠난 이의 영혼을 달래줌과 동시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광주시립합창단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며 광주시립

교향악단의 연주에 맞춰 합창을 선보인다. 아울러 소프라노 김선희, 바리톤 방대진, 오르간 황양숙 등도 출연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학생 50%)이며,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415-520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창작씨앗' 14일까지 온라인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신설해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

창작씨앗은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신진예술인 3000명(60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이 낮은 예술인 순으로 선정하고 장애예술인 경우에는 등급·종류와 무관하게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자는 7월 셋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2차 신청 접수는 7월 말에 진행된다. 문의 02-3668-0200.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 없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 없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 걱정이 없다.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는 밤자취를 확장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인생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